

---

저자 (Authors)	송지연
출처 (Source)	<a href="#">새가정 65</a> , 2018.9, 68-69(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새가정사</a> Christian Home&Family Life Association in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25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2545</a>
APA Style	송지연 (2018). [가정 뉴스 되새김] 일회용품과의 전쟁. 새가정, 65, 68-6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일회용품과의 전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의 후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 지구 위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데 더욱 힘쓰자.

2018년 여름은 매일같이 기온온도 신기록 경신을 거듭한 해로 기억될 만큼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다.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던 1994년 폭염을 뛰어넘는, 아니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도 언급되는, 체감온도로는 가히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 극심한 폭염(暴炎)이었다.

이 같은 폭염의 원인으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현상일 것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멈추지 않으면 아마도 내년 여름도 올해와 비슷한, 아니면 더 심한 폭염이 오리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늦긴 했지만, 이미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플라스틱 일회용품과의 전쟁!

8월 1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이 조치의 시행에 따라 커

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금지되었다. 이를 어겨 적발되는 업체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200만 원까지 금액이 올라간다(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벌금, 벌칙을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회용컵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매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아직 많다(데일리안, 8월 1일,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첫날, 알바도 고객도 우왕좌왕”).

지난 5월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율협약을 맺었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내놓았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빨대 퇴출과 비닐포장재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종이빨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 1,180개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아이스 음료의 경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컵 뚜껑)’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시사뉴스, 7월 10일, “스타벅스, 종이빨대 도입 등 ‘친환경계획’발표”). 그런데 자율협약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이 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니 문제이다.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편의성에 물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며 북극의 얼음지대가 숲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마저 나오고 있는 요즘(한겨레 8월 6일, “더워진 지구, 북극에 숲이 생기고 있다”), 인간의 편리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연에 위협하다.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결과를 우리의 후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 지구 위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데 더욱 힘쓰자.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에 대해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송지연**